

# 경남방언의 성조

김고은

| 서울대학교 |

## 국문초록

이 글은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 성과에 기대어 경남방언의 성조를 전반적으로 소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 경남방언의 성조를 성조소, 성조형과 그 실현, 그리고 최근 청년층에서 관찰되는 성조형의 변화 등의 영역에서 살펴본다.

첫째, 경남방언의 성조소 체계는 ‘저조(L)’와 ‘고조(H)’를 가지는 2-성조소 체계이다. 둘째, 경남방언의 성조형은 중세국어에서 각각 평성, 거성, 상성으로 시작되는 것에 대응하는 ‘말(馬)형’, ‘말(斗)형’, ‘말(語)형’의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되는데, 세 유형의 성조형의 실현은 경남방언의 하위 방언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셋째, 경남방언 청년층에서는 말(語)형과 저조로 시작하는 말(馬)형의 합류가 관찰되는데, 그 결과 경남방언의 성조형이 과거보다 단순해지고 있다.

핵심어: 경남방언, 성조, 성조소, 성조형, 성조세대차

## 1. 서론

허웅(1954)에 의하여 방언 성조 연구가 시작된 이래로, 수많은 연구자들이 경

남방언 성조의 특성을 규명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동안 경남방언 연구자들은 경남 내 하위 지역어들의 성조 자료를 조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공식적으로 기술하고 체계를 세웠으며, 나아가 방언 간 성조 대응 관계나 성조의 통시적 변화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답하고자 하였다. 그 결실로, 지난 60여 년간 경남방언 성조에 관한 방대한 연구 업적들이 축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경남방언 성조의 연구사는 아니지만, 그러한 많은 연구 업적들에 기대어 경남방언의 성조를 전반적으로 도입하는 데 목적이 있다.<sup>1)</sup> 즉 대부분은 경남방언의 성조에 대한 주요 논의들과 성조 자료들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면서 경남방언의 성조 그 자체를 소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경남방언의 성조소, 성조형과 그 실현, 그리고 최근 청년층에서 관찰되는 성조형의 변화 등을 다루고자 한다.<sup>2)</sup>

그동안 방언 성조는 음운론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성조 직관 등을 이유로 진입 장벽이 높은 분야로 여겨져 왔고, 성조가 언어 체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경상방언 연구에 있어서도 성조에 대한 고찰이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었다. 이 글은 경남방언의 성조에 보다 쉽게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경남 성조에 대한 논의를 조금이나마 활발히 할 수 있다는 의의를 가진다.

이 글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장에서는 경남방언의 성조소 설정에 대해 논의하며, 제3장에서는 경남의 하위 방언/지역어에서 ‘말(馬)형’, ‘말(斗)형’, ‘말(語)형’의 세 가지 성조형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살펴본다.<sup>3)</sup> 제4장에서는 최근 경남방언의 청년층 발화에서 말(語)형과 저조로 시작하는 말(馬)형이 합류

1) 성조 연구사를 다룬 논문으로는 이상억(1990), 김주원(1994), 김영만(1992), 김차균(1991, 1997), 이문규(1998), 최명옥(1998) 등이 있다.

2) 김주원(1991)의 서론에서 언급하듯 ‘과장해서 말하자면 성조론에서는 각 연구자마다 각자의 표기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성조 이론 체계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이 글에서도 선행 연구를 옮기는 데 있어 글쓴이의 선택이 관여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

3) 이 글에서는 편의상 중세국어에서 각각 평성, 거성, 상성으로 시작되는 것에 대응하는 경남방언의 세 가지 성조형을 ‘말(馬)형’, ‘말(斗)형’, ‘말(語)형’으로 이름 붙여 논의하고자 한다. 각 성조형에 대한 설명은 후술 참고.

하는 현상을 소개한다. 제5장은 결론으로, 본론의 논의를 요약함으로써 글을 마친다.

## 2. 경남방언의 성조소

경남방언의 성조에 대한 대부분의 논의에서는 ‘고조’와 ‘저조’를 성조소로 인정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말(語), 사람’ 등의 첫 음절에 나타나면서, 경북의 ‘상승조’에 대응하는 성조소의 설정이다.<sup>4)</sup>

일찍이 김해지역어를 대상으로 한 허웅(1954)에서는 ‘방언의 음절 음조’를 ‘낮은 가락, 가운데 가락, 높은 가락’의 세 가지로 나누고 ‘말(語)’을 낮은 가락으로, ‘말(斗)’을 가운데 가락으로, ‘말(馬)’을 높은 가락으로 분류하였다. 즉, ‘말(語), 사람, 굼벡이’ 등의 첫 음절이 음성적으로 가장 낮게 실현되며, 또한 이것이 방언 화자들에게 유의미하게 인식된다고 본 것이다. 경남방언의 성조소를 세 개로 파악하고자 하는 기조는 문호근(1974), 김차균(1980), 김영만(1986) 등에서 이어졌다.<sup>5)</sup>

특히 김차균(1980)에서는 이를 더욱 구체화하여, 저조(L), 중조(M), 고조(L)의 음성학적 인식과 음운론적 판단을 각각 15 등급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가장 낮은 음(예: 사람[LM])을 다 장조의 ‘도’로, 가장 높은 음(예: 노래[HL])을 ‘솔’로 간주한다. 다음 [L]에서 [H]까지를 1/4도씩 나누면 [1]-[15]의 15 등급이 도출된다. 음운론적으로는 [1]이 저조(L)가 시작하는 선, [4]가 중

4) 경남방언에서 음장(음의 길고 짧음)은 잉여적인 자질이다. 허웅(1955:90)에서는 경남방언의 화자들이 음의 고저에 대해서는 매우 민감하지만 길이에 대해서는 민감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더불어 ‘없:-(無)’, ‘사:람(人)’ 등 다소 길게 내는 경향이 보이는 낮은 가락을 가운데 가락이나 높은 가락보다 짧게 내더라도 말의 뜻을 알아듣는 데는 지장이 없다고 기술하였다. 즉 이 지역에서 음장은 뜻의 변별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다.

5) 단, 김영만(1986)에서는 경남방언의 성조 체계를 ‘저조, 중조, 고조’가 대립하는 3단 체계가 아닌, ‘최저조, 저조, 고조’가 대립하는 3단 체계로 분석하였다.

조(M)가 시작하는 선, 그리고 [12]가 고조(H)가 시작하는 선이 된다. 이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의 <표 1>과 같다(김차균 1980:29 <표 41> 인용).<sup>6)</sup>

성조	음운론적 등분	음성학적 등분
L	[1]-[3]	[1]-[5]
M	[4]-[11]	[6]-[10]
H	[12]-[15]	[11]-[15]

<표 1>

이때 김차균(1980:30-34)에서 제시한 창원지역어의 자료인 (1)을 보자. ‘말(語), 사람’(각각 [L], [LM]으로 표기) 등의 첫 음절은 [1]의 높이에서 시작하여, ‘해(太陽), 다리’(각각 [M], [MH]로 표기) 등의 첫 음절이 중조의 영역인 [4]와 [9]의 높이에서 시작하는 것과 차이를 보인다.

- (1) 말(語) [L] [1·2]<sup>7)</sup>      해(太陽) [M] [9]  
 사람 [LM] [1·2-11]      다리 [MH] [4-13]

이처럼 김차균(1980)을 비롯하여 경남방언의 성조소를 세 개로 보고자 하는 논의에서는 ‘말(語), 사람’ 등의 첫 음절이 ‘해(太陽), 다리’ 등의 첫음절보다 더 낮은 음역, 즉 가장 낮은 음역에서 실현된다는 음성적 실재를 중시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와 달리, 최명옥(1990, 1998), 김주원(2000) 등에서는 경남방언에 ‘저조’와 ‘고조’, 두 개의 성조소만이 존재함을 주장하였다.<sup>8)</sup> 먼저 최명옥(1990:129-1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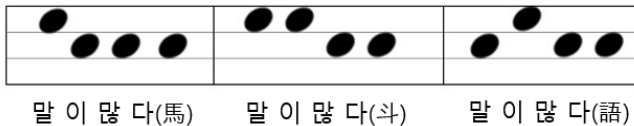
6) 김차균(2001:84)에 따르면 경남방언의 대부분과 경주 방언 등 일부 경북방언에는 [1]-[15]의 높이가 모두 나타나지만, 경북대구방언의 대부분에서는 [4]-[15]의 높이만 나타난다고 한다.

7) 김차균(1980:30)에 따르면 창원지역어에서 위와 같은 음조형의 첫 음절은 ([1·2]로 표기) 1.3 모라이고 [1]의 높이에서 시작되어 약간 지속되다가 [2]의 높이까지 가볍게 상승한다고 한다.

8) 정연찬(1974), 신기상(1986) 역시 음운론적으로 유의미한 음고의 단계는 높거나 낮음의 두 단계로 파악하였지만, ‘말(語)’에 대해 각각 ‘L-H(저고복합조)’, ‘L:(자·장조)’를 설정하였기에 최명옥(1990, 1998), 이기문 외(1991), 김주원(2000) 등과는 성격을 달리한다고 할 수 있다.

에서는 경남방언의 화자들이 ‘말(馬)’과 ‘말(語)’ 혹은 ‘말(斗)’과 ‘말(語)’의 고저 차이는 분명하게 식별하면서 ‘말(馬)’과 ‘말(斗)’에 대해서는 고저 차이를 식별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르면 ‘말(馬)’이 ‘말(斗)’보다 높은 음조, 혹은 ‘말(斗)’이 ‘말(馬)’보다 낮은 음조라고 하여 중조를 설정할 근거가 없으며, 경남방언의 화자들의 인식 속에는 높거나 낮음의 두 단계만이 존재할 뿐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경남방언 화자들은 ‘말(馬)’과 ‘말(斗)’의 의미를 어떻게 구분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두 어간이 조사와 결합할 때 보이는 성조 차이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아래의 <그림 1>에서처럼 주격 조사 ‘이’가 후행할 때 ‘말(馬)’은 높은 음에서 낮은 음으로 곧 떨어지는 것처럼 발음되며, ‘말(斗)’은 두 음절의 음고가 똑같이 유지되는 것처럼 발음된다. 이때 어간과 조사의 높이가 동일한 ‘말(斗)이’는 뒤따르는 서술어 ‘많다[LL]’와의 통합관계 속에서 ‘[HH]’로 결정된다. 이처럼 최명옥(1990)은 성조소의 결정에 있어 물리적 음성보다 방언 화자의 인식을 우선으로 하면서, 어간과 어미의 통합관계, 그리고 ‘문장 내에서’의 구 상호간의 통합관계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최명옥 1990:131 <그림 II> 인용).



<그림 1>

한편, 김주원(2000:94-95)에서는 3-성조소 체계에서 각각 ‘[LM]’과 ‘[MH]’로 파악되는 ‘사람’과 ‘바람’의 첫 음절이 실제 음성상에서도 높낮이의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다. 아래의 <표 2>는 마산, 김해, 고성 지역의 제보자로부터 얻은 녹음 자료를 바탕으로 모음의 기본주파수 F0를 분석한 결과이다(김주원 2000:94 표 인용).

(Hz)	사람	바람	사람이	바람이
마산	110-128	106-123	116-137-130	109-132-92
김해	121-130	110-130	122-126-130*	105-128-94
고성	131-167	112-159	128-161-135	133-183-127

&lt;표 2&gt;

위 실험 결과를 통해, 첫째, ‘사람’에 비해서 ‘바람’의 음조가 일관되게 낮으며, 둘째, ‘사람’과 ‘바람’의 음조가 1음절이 낮고 2음절이 높은 점에서 대체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김주원(2000)에서는 경남동부방언의 경우 ‘사람’과 ‘바람’의 각각의 어절 성조형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2음절 어휘에서는 변별력을 상실하여 같은 성조형으로 실현된다고 보았다.

저조와 중조가 보이는 음고의 차이가 방언 화자들에게 음운론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최명옥 1990), 실제 주파수 값에서도 저조와 중조의 차이가 없다는 점(김주원 2000) 이외에도 경남방언의 성조소를 세 개로 보는 것에는 또 다른 문제점이 존재한다. 먼저, 저·중·고의 3-성조소 체계에서는 고조에서 단계적으로 하강하는 어절에서조차 표면에 ‘L’이 나타나지 않는다(임석규 2003:48-49).

(2) ㄱ. 삼십만년[HM<sup>3</sup> = HMMM]<sup>9)</sup>

ㄴ. 대구에서부터만큼은[HM<sup>8</sup> = HMMMMMMMM]<sup>10)</sup>

(2ㄱ, ㄴ)은 김차균의 견해에 따라 각각 안동지역어와 문경지역어의 예를 표기한 것이다. 두 예 모두 첫 음절에서 고조가 높이고 음고가 점차 낮아져 마지막 음절은 아주 낮게 발음됨에도 불구하고 그 표기에서는 ‘L’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임석규(2003:49)의 비판대로 “화자의 언어의식과 맞지 않는” 성조 표기이다.

9) 김차균(2002), <안동방언과 밀양방언 성조 비교>, 《어문연구》 39, 어문연구학회. 임석규(2003)에서 재인용.

10) 김차균(2003), 《영남 방언 성조 비교》, 역락. 임석규(2003)에서 재인용.

또한, 경남방언을 저·중·고의 3-성조소 체계로 설정할 경우, 이 방언을 다른 방언과 비교하거나 대응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이 따른다(이문규 2001:143-144). 경북방언이나 강원 영동방언의 ‘저조’는 음성적으로나 음운론적으로 경남방언의 ‘중조’에 대응한다. 이에 따라 김차균, 김세진 등의 3-성조소 체계에서는 방언 간의 통합적 기술을 위해 이들 방언의 성조를 ‘중조’와 ‘고조’만으로 표기한다. 그런데 이문규(2001:143-144)에서 제기하듯 이 방언의 화자들이 모든 소리를 ‘높은 소리/낮은 소리/긴 소리’로 인식한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중조’와 ‘고조’의 2단 체계는 방언 화자의 직관에 부합하지 않는다. 더불어 ‘저조’가 없이 ‘중조’와 ‘고조’를 둔다는 것은 체계적으로도 어색하다고 할 수 있다.<sup>11)</sup>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경남방언을 3-성조소 체계로 설정하는 데 부담이 있다면 그 해답은 경남방언을 ‘저조’와 ‘고조’로 이루어진 2-성조소 체계로 설정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여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바로 서로 다른 성조형인 말(馬)형과 말(語)형을 표기상에서 구분하기 힘들다는 기술상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다. 말(馬)형에 속하는 ‘바람부터’에 관해 경북방언은 ‘LLHL’로 표기하는 것이 실제 음성형에 가까운 반면, 경남동부방언에서는 ‘LHHL’로 표기하는 것이 실제 음성형에 가깝다고 알려져 왔다. 이는 경남방언에서 ‘바람부터’가 발음될 때에는 제2음절이 상당히 높게 실현되고 제3음절이 가장 높게 실현되며 제4음절에서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이다. 그런데 ‘바람부터’를 ‘LHHL’로 표기할 경우, ‘사람부터’와 같이 제2·3음절이 높게, 그리고 제4음절이 낮게 실현되는 말(語)형 어절과 표기상으로 구분이 불가능해지는 약점을 가지게 된다.<sup>12)</sup>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주원(2000)에서는 말(馬)형 어절에 관하여 가장 높은

11)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박숙희(2005), 이문규(2010)에서는 경남방언에 관해 ‘더 낮은 저조’(박숙희 2005) 혹은 ‘최저조’(이문규 2010)/‘저조/고조’의 3단 체계를 설정하고 있다.

12) 선행 논의에서 현대국어 성조 방언의 성조소 체계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는 최명옥(1998:32)의 <표 1>에 정리되어 있다. 이중 경남방언에 대한 부분에 다른 논의를 추가하여 수정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음절만을 하나의 ‘H’로 표기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이에 따르면 말(馬)형에 속하는 ‘바람부터’는 ‘LLHL’로, 말(語)형에 속하는 ‘사람부터’는 ‘LHHL’로 표기되어 두 성조형이 표기상에서도 구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문규(2017:156)에서 주지하듯이 이러한 표기는 “순전히 음운론적인 판단일 뿐”, 경남·북의 말(馬)형 실현은 청각적 인상에서 차이가 존재한다.

김주원(2000)의 표기 방법은 각 어절 성조형이 기저에서 가지는 성조 배열을 반영한다는 이점을 제공한다. 경남동부방언에서 말(馬)형은 기저에서 한 개의 H만을 허용하는 반면, 말(斗)형과 말(語)형은 두 개의 H를 허용한다(김주원 2000: 96). 만일 표면 실현형만을 고려하여 ‘끼뜨래미’와 ‘거무리가’를 동일하게 ‘LHHL’로 표기한다면 두 어절 성조형이 모두 두 개의 ‘H’로 표기되기 때문에 기저에서 가지는 성조 배열을 적절히 나타낼 수 없게 된다.

더불어 말(馬)형은 인지적으로도 음고가 낮아지는 음절의 위치에 의해 구별되기 때문에(伊藤貴祥 2015:37), 가장 높게 실현되는 음절과 이내 현저히 낮아지는 음절만을 각각 ‘H’와 ‘L’로 표기해 주어도 해당 어절 성조형의 음조적 특징을 충분히 표기할 수 있다.<sup>13)</sup> 김차균(2002 7:32-33)에 따르면 말(馬)형 어절

논저	방언 (지역어)	성조소수	기본 성조소			복합 성조소	비고
			馬	斗	語		
허웅(1954)	김해	3	H	M	L		H=고조 M=중조 L=저조 R=상승조 s.L=최저조 h=고조(파생) l=저조(파생) L:=저·장조 L·H=저·고조 H·L=고·저조
정연찬(1974)	고성	2	H	L	L·H		
문효균(1974)	경남	5	H	M	L	M·H, H·M	
	경북	4	H	L	L:	L·H, H·L	
김차균(1977)	경남·북	3	H	M	L		
김영만(1986)	경남	5	H,h	L,l	s.L		
	경북	5	H,h	L,l	L:		
신기상(1986)	동부 경남	2	H	L	L:		
최명옥(1990)	경남	2	H	H	L		
	경북	3	H	H	R		
		※ L은 2음절 이상의 어간에 존재					
김주원(2000)	경북	2	H	H	L·H		
	경남	2	H	H	L		

13) 이문규(2011:212-213)에서는 경북방언(고령, 경주지역어) 역시 음성학적 사실을 충실하게 반



‘이주까리라도’가 경남방언에서는 ‘[MHHMMM]’으로, 경북방언에서는 ‘[MMHMMM]’으로 실현되는데, 일반 화자들은 이러한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하는 경우가 드물 뿐만 아니라, 두 방언에서 ‘[MHHMMM]’와 ‘[MMHMMM]’가 임의적으로 변이하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伊藤貴祥(2015:37)가 주지하듯, 이 현상을 근거로 하였을 때 말(馬)형은 음고가 높아지는 음절의 위치나 음고 자체가 아니라 음고가 낮아지는 음절의 위치에 의해 변별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음고가 높아지는 것보다는 높은 음조가 곧 떨어지는 음절 위치만을 시각적으로 나타내어도 경남방언의 말(馬)형에 관해서는 충분한 성조 표기가 될 수 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 이 글에서는 김주원(2000)의 표기 방법에 따라 방언 성조 자료를 표기하도록 한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경남방언의 성조소 체계는 ‘저조(L)’와 ‘고조(H)’로 이루어진 2-성조소 체계로 정리된다.

### 3. 경남방언의 성조형과 그 실현

허웅(1955)에서 성조 기술의 단위로 ‘어절’을 강조하고, 이 어절을 단위로 실현되는 ‘성조형’을 성조 기술의 대상으로 삼은 이래로, 김영만(1966, 1972), 菅野裕臣(1972), 김차균(1980), 김주원(2000) 등에서는 ‘어절 성조형’을 중심으로 한 방언 성조 기술을 채택하였다.<sup>14)</sup> 이들이 주장하는 바는 표기 방법이 다를 뿐 본질적인 내용은 같다: 경상방언의 성조형은 중세국어에서 각각 평성, 거성, 상

---

영할 경우 ‘바지저고리[LHHHL]’와 같은 표기가 되나, 말(馬)형에 대해 ‘어느 한 음절만 고조이고 나머지는 모두 저조로 실현되는 형’으로 인식하는 화자의 직관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바지저고리[LLLHL]’와 같은 표기가 더 적합하다고 보았다.

14) 이 글의 말(馬)형, 말(斗)형, 말(語)형은 김영만(1972)의 ‘O형, U형, W형’, 菅野裕臣(1972)의 ‘유핵어절(○○○」○○·)’, 높게 시작되는 무핵어절(「○○○○○○·), 낮게 시작되는 무핵어절(「○○○○○○·)’, 김차균(1977)의 ‘H<sub>1</sub>M<sup>h</sup>’, ‘M<sub>1</sub>’, ‘L<sub>1</sub>’, 김주원(2000)의 ‘0형, 1형, 2형’에 해당하는 것이다. 국어 성조론에서의 성조형의 개념과 위상은 이문규(2013) 참고.

성으로 시작되는 것에 대응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편의상 중세국어에서 각각 평성, 거성, 상성으로 시작되는 것에 대응하는 경남방언의 세 가지 성조형을 ‘말(馬)형’, ‘말(斗)형’, ‘말(語)형’으로 이름 붙여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들 성조형을 경남동부방언의 4음절 어절로 예를 들어 보이면 다음의 <표 3>과 같다(김주원 2000:95 표 인용, 표 안 ‘[ ]’ 속 명칭은 본고에 따른 것).

어절 성조형	음조	보기
01형	HLLL	머느리가
0형 <sup>15)</sup>	LHLL	개구리가
[말(馬)형]	LLHL	까트래미
04형	LLLH	가을바람
1형[말(斗)형]	HHLL	무지개가
2형[말(語)형, 경남 동부]	LHHL	거머리가

&lt;표 3&gt;

<표 3>에서 보여 주듯, 말(馬)형은 어느 한 음절이 두드러지게 높게 실현되는 성조형인데, 몇 번째 음절이 특히 높게 소리 나는가에 따라 하위 유형을 가진다. 이와 달리 말(斗)형과 말(語)형은 어절의 음절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실현되는데, 경남동부방언에서 말(斗)형은 제1, 2음절이 높게, 말(語)형은 제2, 3음절이 높게 실현되는 성조형이다.<sup>16)</sup>

이제 세 가지 성조형이 경남방언의 하위방언·지역어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sup>17)</sup> 경남동부방언을 대표로 창원지역어의 자료를, 경

15) “0형·1형·2형”은 김주원(2000)에서 고안한 어절 성조형의 명칭인데, 이들은 각각 중세국어의 어절 성조형, 즉 평성형(무점)·거성형(1점)·상성형(2점)에 해당한다. 평성형의 하위 유형인 01형, 02형, ... 등의 0n형은 n번째 음절이 높은 형을 말한다.

16) 경남서부방언의 경우 대체로 말(馬)형과 말(斗)형은 경남동부방언과 동일하나, 말(語)형은 제2음절만이 높게 실현되어 ‘[LHLLL...]’과 같이 나타난다.

17) 최명옥(1994)에서는 음운(음운목록, 어간의 재구조화, 음소변동, 음소변화, 성조유형), 어휘(수수, 어우, 파리, 부추, 쇠, 소꿉놀이, 제각기, 막, 가버리-), 어법(존칭 종결어미, 연결어미)에 대한 조사를 통해 동남방언을 경북 방언과 경남 방언으로 나누고, 경북 방언을 다시 경북 중동부 방언과 경북 서부 방언, 경남 방언을 다시 경남 동부 방언과 경남 중서부 방언으로 구획한 바 있다. 이는 성조 층위를 방언 구획에 반영한 최초의 논의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임석

남서부방언을 대표로 사천지역어의 자료를 제시하였는데, 각각 김차균 외(2008)과 김세진(2006)을 본고의 표기에 따라 인용한 것이다. 더불어 《울산방언사전》(2013)과 《경남방언사전》(2017)도 보조적으로 활용하였다.

### 3.1. 말(馬)형

앞서 소개하였듯 경남방언의 말(馬)형은 어느 한 음절이 두드러지게 높게 실현되는 성조형이다. 이에 따르면 n음절의 어절에는 n개의 (하위) 말(馬)형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남서부방언의 경우 경남동부방언과는 달리 이 예상에 어긋난 모습을 보이는데, 이것은 경남서부방언에서 말(馬)형 일부의 표면 성조가 ‘[L<sub>1</sub>HL]’,<sup>18)</sup> 즉 끝에서 둘째 음절(penultimate)에만 고조가 놓이는 성조로 바뀌는 강력한 현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sup>19)</sup>

(37, ㄴ)은 각각 창원·사천지역어의 자료로, 첫 번째 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어절이며, 명사 단어들 혹은 복합어가 단독형 혹은 곡용형으로 실현된 예들이다.

---

규(2014)에서는 L<sub>1</sub>HL(경북서부)/LH<sub>1</sub>L(경남서부) 울동제약, 상승조 대비형, 부정부사 ‘안’과 용언의 결합에서 나타나는 성조형 등 다양한 성조 현상을 토대로 경상남·북도를 9개의 구획 [경북: (1) 문경, 상주, 김천, 구미 (2) 영주, 안동, 예천, 봉화, 의성 (3) 영양, 청송, 울진, 영덕, 포항 (4) 군위, 칠곡, 성주, 대구, 고령, 달성, 영천, 경산, 청도, 경주, 경남: (1) 거창, 함양, 하동 (2) 산청, 진주, 사천, 남해 (3) 고성, 통영, 거제 (4) 창원, 함천, 의령, 창녕, 함안, 밀양, 김해, 양산, 부산 (5) 울산]으로 나눈 바 있다.

18) ‘L<sub>1</sub>HL’ 등에서 나타난 아래첨자는 그 수 이상의 음절만큼 해당 음고가 나타난다는 뜻이다. 가령 ‘L<sub>1</sub>’은 ‘L’이 하나 이상 존재한다는 뜻이다.

19) 경남서부방언에서 말(馬)형 일부의 표면 성조가 ‘[L<sub>1</sub>HL]’으로 바뀌는 현상은 다수의 선행 연구에서 지적되었다(김차균 1973:95, 김영만 1986:28-31, 김세진 2006:46-64 등). 그런데 이 현상은 거창, 함양, 산청, 하동, 진주, 사천, 남해 등의 경남서부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문경, 상주, 김천 등의 경북서부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김주원 2000:108). 즉 말(馬)형 일부의 표면 성조가 ‘[L<sub>1</sub>HL]’으로 바뀌는 현상은 경남·북을 아울러 동과 서를 구별시키는 중요한 성조 현상인 것이다. 본고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이 현상을 ‘[L<sub>1</sub>HL]화’라고 부르고자 한다.

(3) ㄱ. 창원: 거울(鏡)[HL], 주름[HL], 가마이[HLL], 메느리[HLL], 공립핵고[HLLL], 미숫가리[HLLL], 아지매[HLL], 아지매는[HLLL], 아지매하고[HLLL]

ㄴ. 사천: 거울(鏡)[HL], 주름살[HLL], 가마이[HLL], 메느리[HLL], 공립핵조[HLLL], 미숫가리[HLLL], 아지매[HLL], 아지매는[HLLL], 아지매하고[HLLL]

(3ㄱ, ㄴ)에서 알 수 있듯, 첫 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어절은 창원지역어와 사천지역어의 예들이 동일하게 ‘[HLLL...]’과 같이 실현된다. 이는 [L<sub>1</sub>HL]화가 제1음절에 고조가 놓이고 이내 음고가 떨어지는 말(馬)형 어절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이문규 2017:200).<sup>20)</sup>

(4) ㄱ. 거창: 아으레[LHL], 여드레[LHL], 라면이라도[LLLHL], 담뱃굴[LHL], 일 어성개(일어서니까)[LLHL]

ㄴ. 김천: 배(船)타고[LHL], 파디비났어(파 뒤집어 놓았어)[LLLHL](이문규 2017:199 인용)

그런데 [L<sub>1</sub>HL]화의 적용 영역은 점점 더 넓어져, 원래 그 적용 영역이 아니었던 환경에서도 [L<sub>1</sub>HL]화가 실현되기도 한다. (4ㄱ, ㄴ)은 이문규(2017:199)에서 제시한 경남 거창지역어와 경북 김천지역어의 자료인데, 기저에 ‘HLL’과 같은 성조를 가진 어절뿐만 아니라(‘아으레’, ‘여드레’), 말(斗)형[‘배(船)타고’] 혹은 말(語)형[‘라면이라도’, ‘담뱃굴’] 어절에도 [L<sub>1</sub>HL]화가 적용되고 있어, 이 현상이 매우 생산적이며 광범위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이문규 2017:200).

다음의 (5ㄱ, ㄴ)과 (6ㄱ, ㄴ)은 두 번째 음절 이하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어절의 명사 단일어 혹은 복합어가 단독형 혹은 곡용형으로 실현된 예이다.

20) 이문규(2017:200)에 따르면 “[L<sub>1</sub>HL]-형 되기”가 “둘째 음절 이하에 음고 내림을 가진 성조형을 첫 성분으로 하는 어절 성조형”을 주 대상으로 실현된다고 한다.

- (5) ㄱ. 창원: 다리[LH], 바람[LH], 그림자[LHL], 막걸리[LHL], 다리비질[LHLL],  
 초아으레[LHLL], 손가락[LHL], 손가락이[LHLL], 손가락에서[LHLLL],  
 손가락에서도[LHLLL]
- ㄴ. 사천: 다리[LH], 바람[LH], 그림자[LHL], 막걸리[LHL], 다리비질[LLHL],  
 초아으레[LLHL], 손가락[LHL], 손가락이[LLHL], 손가락에서[LLLHL],  
 손가락에서도[LLLHL]
- (6) ㄱ. 창원: 산나물[LLH], 새다리(梯)[LLH], 초하루[LLH], 갈가마구[LLHL], 호  
 불애비[LLHL], 아주까리잎사귀[LLHLLL], 가매술[LLH], 가매술이  
 [LLHL], 가매술에서[LLHL], 가매술에서도[LLHLLL]
- ㄴ. 사천: 산나물[LHL], 새드레(梯)[LHL], 초하리[LHL], 갈가마구[LLHL], 호  
 불애비[LLHL], 아주까리잎사귀[LLLLLHL], 가매술[LHL], 가매술이  
 [LLHL], 가매술에서[LLLHL], 가매술에서도[LLLLHL]

창원지역어의 예들은 각각 (5ㄱ)에서는 두 번째 음절에, (6ㄱ)에서는 세 번째 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데 비해, (5ㄴ)과 (6ㄴ)의 사천지역어의 예들은 ‘다리 [LH], 바람[LH]’의 예를 제외하고는 음절수에 관계없이 어절의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고조가 없한다. 이 예들은 [L<sub>1</sub>HL]화가 체언의 단독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체언+조사’, ‘용언+어미’ 등 어절을 이룰 수만 있다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한편, 임석균(2014)는 고성·통영·거제에서 어간의 마지막 음절에 고조가 오는 말(馬)형 체언 어간의 경우 그 단독형만 [L<sub>1</sub>HL]화를 입고 곡용형은 그렇지 않음을 보고하였다. 즉 고성·통영·거제지역어는 경남동부방언과 경남서부방언의 접촉방언적 성격을 가진다는 것이다. 아래의 (7)은 임석균(2014:17, 23)에서 제시한 자료를 본고의 성조 표기 방법에 따라 옮긴 것이다.

(7)

	기와집	기와집이	기와집에서	기와집에서도
경남서부	LHL	LLHL	LLLHL	LLLLHL
고성·통영·거제	LHL	LLHL	LLHLL	LLHLLL
경남동부	LLH	LLHL	LLHLL	LLHLLL

	조선무시	조선무시가	조선무시라도
경남서부	LLHL	LLLHL	LLLLHL
고성·통영·거제	LLHL	LLLHL	LLLHLL
경남동부	LLLH	LLLHL	LLLHLL

(7)에서 볼 수 있듯, 고성·통영·거제의 ‘기와집’, ‘조선무시’의 단독형은 그 서쪽 지역의 성조와 일치하고, 곡용형은 그 동쪽 지역과 일치한다. 이는 고성·통영·거제에서 끝음절에 고조가 오는 말(馬)형 체언의 단독형이 서부의 [L<sub>1</sub>HL] 화에 영향을 받아 ‘[LHL], [LLHL], …’과 같이 실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21)</sup> 즉 고성·통영·거제지역어에서는 경남동부방언과 서부방언 간의 전이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다.

### 3.2. 말(斗)형

경남방언의 말(斗)형은 ‘[HHLLL….]’과 같이 어절의 앞 두 음절은 비슷하게 높게 실현되고, 제3음절 음절 이하는 낮아지는 어절 성조형이다. 말(斗)형에 관해서는 경남의 동·서뿐만 아니라, 경북과 경남이 동일한 실현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의 (8ㄱ, ㄴ)은 각각 창원지역어와 사천지역어의 말(斗)형 어절이며, 명사 단일어 혹은 복합어가 단독형 혹은 곡용형으로 실현된 예들이다.

21) 임석규(2014)에서는 이 현상을 “L<sub>1</sub>HL(경북서부)/LHL(경남서부) 울동제약”으로 파악하였다. 이 울동제약은 저조로 시작하는 어절을 대상으로 경북서부방언에는 끝에서 둘째 음절만 고조를 배당하며, 경남서부방언에는 둘째 음절부터 끝에서 둘째음절까지 모두 고조를 배당한다.

(8) ㄱ. 창원: 구름[HH], 파리[HH], 허깨비[HHL], 흠애비[HHL], 국민학교  
[HHLL], 수양버들[HHLL], 색동저고리[HHLLL], 참새새끼[HHLL], 참새  
새끼는[HHLLL], 참새새끼하고[HHLLLL]

ㄴ. 사천: 구름[HH], 파리[HH], 허깨비[HHL], 흠애비[HHL], 국민학교  
[HHLL], 수양버들[HHLL], 색동저고리[HHLLL], 참새새끼[HHLL], 참새  
새끼는[HHLLL], 참새새끼하고[HHLLLL]

(8ㄱ, ㄴ)의 예에서 볼 수 있듯, 창원지역어와 사천지역어의 말(ㅌ)형은 음절  
수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HHLLL...]’로 실현됨을 알 수 있다.

### 3.3. 말(語)형

말(語)형은 경남 내에서도 하위방언마다 그 실현 양상의 차이가 가장 큰 성  
조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말(語)형의 실현을 기준으로 경남을 거칠게 나누자면,  
울산·거창 등 경북방언처럼 첫 음절이 ‘상승조’로 실현되는 지역<sup>22)</sup>, 부산·김  
해·창원 등 ‘[LHHLL...]’과 같이 실현되는 지역, 그리고 진주·사천·고성 등  
‘[LHLLL...]’로 실현되는 지역, 이렇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다음 (9ㄱ,  
ㄴ, ㄷ)은 각각 울산, 창원, 사천지역어의 성성형 어절이며, 명사 단일어 혹은 복  
합어가 단독형 혹은 곡용형으로 실현된 예들이다.<sup>23)</sup>

(9) ㄱ. 울산: 도치[RH], 사람[RH], 거머리[RHL], 사투리[RHL], 고구마[RHL],

22) 많은 연구에서 경북과의 접경에 위치한 울산, 거창에서는 경북과 동일하게 상승조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영만 1986:11, 신기상 1999:34-36, 김주원 2000:106, 이문규 2011:208-  
210, 임석규 2014:26 등). 다만 임석규(2014:28-29)에 따르면 거창보다는 울산에서 상승조의  
지위가 더 안정적이라고 한다. 이외에도 양산(신기상 1999:34-36), 함천(이문규 2011:208-  
210), 하동(임석규 2014:29)에도 상승조가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다. 함양의 경우 김주원  
(2000:106)에서는 말(語)형이 ‘[L-HHLL...]’ (본고에 따르면 [RHLL...])과 같이 실현된다고  
보는 반면, 임석규(2014:30)에서는 ‘[HHLLL...]’과 같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23) 울산지역어의 자료는 《울산방언사전》(2013)과 《경남방언사전》(2017)을 이용하였다.

거짓말재이[RHLLL], 대추[RH] 대추가[RHL] 대추에서[RHLL] 대추에서  
도[RHLLL]

ㄴ. 창원: 도끼[LH], 사람[LH], 거머리[LHH], 사투리[LHH], 고구매순  
[LHHL], 거짓말재이[LHHLL], 대추[LH] 대추가[LHH] 대추에서[LHHL]  
대추에서도[LHHLL]

ㄷ. 사천: 도끼[LH], 사람[LH], 거머리[LHL], 사투리[LHL], 고오매순[LHLL],  
거짓말재이[LHLLL], 대추[LH] 대추가[LHL] 대추에서[LHLL] 대추에서  
도[LHLLL]

먼저 (9ㄱ)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울산지역어의 말(語)형은 첫 음절이 경북  
방언과 동일하게 상승조를 동반하여 ‘[RHLLL….]’과 같이 실현된다. 이러한 이  
유로 울산·거창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는 경남에 속하지만 성조론적으로는 경  
북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9ㄴ)의 창원지역어는 제2, 3음절이 높은  
‘[LHHLL….]’으로 실현되는 데 반해, 사천지역어는 (9ㄷ)에서처럼 제2음절만이  
높은 ‘[LHLLL….]’로 실현되어 대비를 이룬다.

한편, 경북에 맞닿아 있는 밀양·창녕 등에서는 말(語)형의 음성적 실현이 전  
형적인 경남방언과 다를 뿐 아니라, 경남·북간의 전이적 특성을 가진다는 사실  
이 지적되었다[밀양에 대해서는 문효근(1974), 김차균(2002ㄴ), 이문규(2010), 밀  
양·창녕에 대해서는 이문규(2011)]. 문효근(1974:33)은 밀양에서는 말(語)형 용  
언의 ‘첫 음절을 부산에 비하여 높이에서는 얼마간 더 높게, 길이에서는 얼마간  
더 길게’ 소리 낸다고 보고하였다. 김차균(2002ㄴ:34-35)에서도 비슷한 관찰이  
발견되는데, 밀양의 말(語)형이 대체로 상승을 동반하면서 1.5 모라 정도로 길  
고, 제3음절이 낮게 발음된다는 것이다. 특히 이문규(2011:214-217)에서는 밀  
양·창녕 지역어의 말(語)형의 ‘첫 음절 음고가 더 높은 음역대에서 발음될수록,  
그리고 상승의 폭이 커질수록 이 음고로 시작하는 성조형의 제3음절은 낮아지  
는 경향’을 보여, 흡사 경북 내륙방언의 말(語)형과 닮아진다는 것을 밝혔다(이  
문규 2017:152). 즉, 밀양·창녕 등 경남·북 접경지역에서 실현되는 말(語)형의



다양한 변이형은 경남방언형과 경북방언형의 전이적 양상을 드러내는 것이다.

#### 4.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성조형의 변화 양상

이 장에서 논하게 될 성조형의 변화는 경남방언 청년층에서 보이는 말(語)형과 저조로 시작하는 말(馬)형의 합류이다. 이러한 합류는 경남서부방언(진주지역어)과<sup>24)</sup> 동부방언(부산지역어)에서<sup>25)</sup> 각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결과적으로 경남의 두 하위방언 모두 성조형이 과거보다 단순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뜻한다.

##### 4.1. 경남서부방언

김차균(1980:23-25)에 따르면 진주지역어에서 말(語)형에 기원을 둔 ‘[LHLL], [LHLLL], [LHLLLL]...’ 등의 성조형은 [L<sub>1</sub>HL]화를 입지 않기 때문에 뒤에서 두 번째 음절이 높은 ‘[LLHL], [LLLHL], [LLLLHL]...’ 등으로는 실현되지 않음을 밝혔다.<sup>26)</sup> 그런데 伊藤貴祥(2011:201-202)의 조사 결과, 2011년 당시 진주

24) 진주지역어의 노년층 자료는 김차균(1980)을, 청년층 자료는 伊藤貴祥(2011)을 각각 인용한 것이다. 특히 청년층에서의 성조형 변화와 관련한 내용은 伊藤貴祥(2011) 참고.

25) 부산지역어의 자료는 김고은(2016)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 자료는 2015년에 조사된 것으로서 3대째 이상 부산에 거주한 780대의 노년층 화자와 230대의 청년층 화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실제시간(real time)과 현상시간(apparent time)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이 글에서는 부산지역어의 노년층과 청년층이 보이는 세대차를 변화로 해석하고자 한다.

26) 이는 이 글의 성조 표기 방법에 따라 옮겨 적은 것이다. 경남방언에 있어 자중고의 3-성조소 체계를 설정하는 원저에서는 당시 주 제보자였던 30대 진주방언 화자들이 다음과 같은 규칙을 가지고 있다고 설정하였다(김차균 1980:23).

$$(i) \left\{ \begin{array}{l} MH_1M_2 \\ MH_2 \end{array} \right\} \rightarrow MH_1M$$

$$(ii) LM_2 \rightarrow MHM_1$$

규칙 (i)은 이 글의 [L<sub>1</sub>HL]화를 규칙화한 것이다. 규칙 (ii)는 3음절 이상의 말(語)형을 제2음절이 높은 말(馬)형으로 바꾸는 규칙으로, ‘LM<sub>M</sub>→MHM, LM<sub>MM</sub>→MHMM’과 같이 ‘L’

청년층에서는 말(語)형이 말(馬)형에 합류하여, [L<sub>1</sub>HL]화에 참여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2·3음절 말(語)형 체언 어간과 제2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체언 어간의 곡용형이 이 지역 청년층에서 동일하게 실현된다는 사실에서 드러난다. 김차균(1980)과 伊藤貴祥(2011)를 대비하여 나타내면 다음의 (10, 11)과 같다.

(10)

	단독형	+‘.이/가’	+‘.에서’
사람	사람 [LH]	사람이 [LHL]	사람에서 [LHLL]
바람	바람 [LH]	바람이 [LHL]	바람에서 [LLHL]

김차균(1980)

	단독형	+‘.이/가’	+‘.에서’
사람	사람 [LH]	사람이 [LHL]	사람에서 [LLHL]
바람	바람 [LH]	바람이 [LHL]	바람에서 [LLHL]

伊藤貴祥(2011)

먼저 (10)은 말(語)형 체언 ‘사람’과 제2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체언 ‘바람’의 단독형, 곡용형을 각각 나타낸 것이다. (10)의 ‘사람’은 말(語)형 체언으로, 김차균(1980)의 조사에서는 ‘사람[LH], 사람이[LHL], 사람에서[LHLL]’와 같이 모든 곡용형에서 두 번째 음절이 높은, 전형적인 경남서부방언의 말(語)형 실현을 보였다. 그러나 伊藤貴祥(2011)의 조사에서는 ‘사람’의 곡용형이 끝에서 두 번째 음절이 높게 실현되어 [L<sub>1</sub>HL]화를 겪는 말(馬)형 체언인 ‘바람’의 곡용형과 동일하게 실현되었다.

---

및 ‘M’이 ‘M’으로, ‘M’이 ‘H’로 바뀌어서 전체적으로 음이 조금씩 높아진다(伊藤貴祥 2011:202). 항상 규칙 (i)이 적용된 뒤 규칙 (ii)가 적용되기 때문에 말(語)형 ‘LM<sub>MM</sub>’에서 기원한 ‘MHMM’이 ‘MMHM’으로 바뀌는 일은 없다.

(11)

	단독형	+‘이/가’	+‘에서’
고구마	고구마 [LHL]	고구마가 [LHLL]	고구마에서 [LHLLL]
까마귀	까마귀 [LHL]	까마귀가 [LLHL]	까마귀에서 [LLLHL]

김차균(1980)

	단독형	+‘이/가’	+‘에서’
고구마	고구마 [LHL]	고구마가 [LLHL]	고구마에서 [LLLHL]
까마귀	까마귀 [LHL]	까마귀가 [LLHL]	까마귀에서 [LLLHL]

伊藤貴祥(2011)

(11)은 말(語)형 체언 ‘고구마’와 제2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체언 ‘까마귀’의 단독형, 곡용형을 각각 나타낸 것인데, (10)에서 살펴본 양상과 일치한다. 오늘날 진주방언 청년층 화자들에서는 말(語)형 체언인 ‘고구마’의 곡용형이 말(馬)형 체언인 ‘까마귀’의 그것과 동일한 성조로 실현되어, 불과 30년 전 이 지역 청년층에서 존재하던 ‘고구마’와 ‘까마귀’의 성조상 구별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합류의 결과, 伊藤貴祥(2011:201)에서 주지하듯이 진주방언에는 모든 어절이 음절수와 상관없이 ‘[HL<sub>0</sub>], [L<sub>1</sub>HL], [HHL<sub>0</sub>]’의 세 가지 표면 성조만을 가지게 되었다. 즉, 경남서부방언의 청년층 성조형은 말(語)형과 말(馬)형의 합류를 통해 노년층의 그것보다 더욱 단순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것이다.

## 4.2. 경남동부방언

경남동부방언에서도 경남서부방언에서 발견된 말(語)형과 말(馬)형의 합류를 포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는 3음절 체언 어간만이 말(語)형과 말(馬)형의 합류를 보인다는 점(즉, 2음절 체언 어간에서는 합류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합류의 방향이 말(馬)형이 아닌 말(語)형이라는 점(즉, 말(馬)형이 말(語)형에 합류된다]에서 경남서부방언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부산지역어의

## 2음절 체언을 살펴보자.

(12)		단독형	+‘.이/가’	+‘.에서’	+‘.까지도’
	사람	사람 [LH]	사람이 [LHH]	사람에서 [LHHL]	사람까지도 [LHHLL]
	바람	바람 [LH]	바람이 [LHL]	바람에서 [LHLL]	바람까지도 [LLHLL]

노년층, 청년층(동일)

(12)에서 말(語)형 체언 ‘사람’은 말(馬)형 체언인 ‘바람’과 곡용형의 성조 실현에서 차이를 보인다. ‘사람’의 곡용형은 어절의 음절수에 관계없이 항상 제2, 3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LHHLL...]과 같이 실현된다. 반면 ‘바람’의 곡용형은 ‘-부터’, ‘-까지’ 등 2음절 이상의 보조사와 결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음절에 고조가 얹힌다. 이때 ‘사람’과 ‘바람’의 곡용형의 성조는 노년층과 청년층 모두에서 구분된다.

그런데 2음절 체언 어간과는 달리, 3음절 체언에서는 노년층과 청년층의 성조 실현이 달리 나타난다. 즉, 노년층의 경우 말(語)형과 제3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체언의 곡용형에 구별이 있는 데 비해, 청년층의 경우 제3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체언이 말(語)형 체언에 합류한 모습을 보인다.

(13) ㄱ.		단독형	+‘.이/가’	+‘.에서’	+‘.까지도’
	마누라	마누라 [LHH]	마누라가 [LHHL]	마누라에서 [LHHLL]	마누라까지도 [LHHLLL]
	마지막	마지막 [LLH]	마지막이 [LLHL]	마지막에서 [LLHLL]	마지막까지도 [LLHLLL]

노년층

ㄴ.		단독형	+‘.이/가’	+‘.에서’	+‘.까지도’
	마누라	마누라 [LHH]	마누라가 [LHHL]	마누라에서 [LHHLL]	마누라까지도 [LHHLLL]
	마지막	마지막 [LLH]	마지막이 [LLHL]	마지막에서 [LLHLL]	마지막까지도 [LLHLLL]

청년층

먼저 (13ㄱ)에서 보듯 노년층의 말(語)형 체언 ‘마누라’는 어떠한 조사와 결합하더라도 곡용형의 성조가 제2, 3음절이 높은 ‘[LHHLL...]’로 일정하게 나타난다. 반면, 제3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체언 ‘마지막’은 ‘-부터’, ‘-까지’ 등 자음으로 시작하는 2음절 이상의 보조사가 후행할 때에는 제4음절이 가장 높게 발음되고, 그 이외의 조사가 결합할 때에는 제3음절이 가장 높게 발음된다.

이와 달리 (13ㄴ)의 청년층은 제3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어간인 ‘마지막’에 ‘-이/가’, ‘-에서’ 등의 조사뿐만 아니라 2음절 이상의 보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에도 ‘마지막까지도[LLHLLL]’와 같이 제3음절이 높게, 그리고 뒤따르는 제4음절이 현저히 낮게 발음된다. 즉 조사의 종류에 관계없이 ‘마지막’의 곡용형은 제3음절에서 음고가 내려가는 것이다. 이는 패러다임상에서 항상 제3음절에서 음고가 낮아지는 말(語)형 어간 ‘마누라’와 동일한 성조적 행동이다. 즉 경남동부방언의 청년층에서 제3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3음절 말(馬)형 체언이 말(語)형 체언에 합류하는 듯한 모습이 관찰된다.<sup>27)28)</sup>

이러한 합류는 경남서부방언과 동부방언에서 각기 다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경남의 두 하위방언 모두 성조형의 가짓수가 적어져 성조 체계가 단순해지는 결과를 낳았다.

27) 음성적 실현에서도 완전한 합류를 보인다면 ‘마지막[LHH], 마지막이[LHHL], 마지막에서[LHHLL], 마지막까지[LHHLL]’ 등과 같이 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는 실험음성학적인 근거가 필요해 보인다. 다만 Q-tone 청취 등급을 통해 경남동부방언의 음조를 분석한 성철재 외(2008)에 따르면 부산지역어의 경우 말(語)형과 제3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은 둘째, 셋째, 넷째 음절의 수치가 비슷하여 변별력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다만, 제보자의 연령에 대한 정보는 주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다면 음성적으로도 말(語)형과 제3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의 합류는 완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성철재 외(2008) 참고. 한편 부산지역어의 경우 체언뿐만 아니라 용언에서도 3음절 말(語)형 어간과 제3음절에 고조가 놓이는 말(馬)형 어간의 합류를 확인할 수 있다(김고은 2016).

28) 伊藤貴祥(2011:194-200)에서 역시 이러한 합류를 확인하였는데, 부산과 창원은 성조형 합류의 방향이 말(語)형인 데에 반해 통영은 말(馬)형인 것이 눈길을 끈다.

## 5. 결론

이 글에서는 지난 60여 년간 축적된 연구 업적들을 바탕으로 경남방언의 성조 전반을 요약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경남방언의 성조를 성조소, 성조형과 그 실현, 그리고 최근 청년층에서 관찰되는 성조형의 변화 등의 주제로 나누어 소개하였다. 이상에서 제시된 경남방언 성조의 특질을 간단히 요약하면서 이 글을 맺기로 한다.<sup>29)</sup>

첫째, 경남방언의 성조소 체계는 ‘저조(L)’와 ‘고조(H)’를 가지는 2-성조소 체계로 정리된다.

둘째, 경남방언의 성조형은 중세국어에서 각각 평성, 거성, 상성으로 시작되는 것에 대응하는 세 가지 유형으로 대별된다. ‘말(馬)형’은 어느 한 음절이 두드러지게 높게 실현되는 성조형인데, [L<sub>1</sub>HL]화, 즉 표면 성조가 끝에서 둘째 음절(penultimate)에만 고조가 놓이는 성조형으로 바뀌는 현상의 적용 여부를 기준으로 경남의 동부와 서부가 구별된다. ‘말(斗)형’은 ‘[HHLLL….]’과 같이 어절의 앞 두 음절은 비슷하게 높게 실현되고, 제3음절 이하는 낮아지는 성조형으로, 이 성조형에 관해서는 경남의 동·서가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말(語)형’은 경남 내에서도 하위방언마다 그 실현 양상의 차이가 가장 큰 성조형인데, 울산·거창 등의 경북 접경에서는 첫 음절이 ‘상승조’로 실현되고, 동부에서는 ‘[LHHLL….]’과 같이 실현되며, 서부에서는 ‘[LHLLL….]’로 실현된다.

셋째, 경남방언 청년층에서는 말(語)형과 저조로 시작하는 말(馬)형의 합류가 관찰된다. 이러한 합류는 경남서부방언과 동부방언에서 서로 달리 나타나는데, 경남의 두 하위방언 모두 성조형이 과거보다 단순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29) 익명의 심사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의 연구 성과들에서 나아가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습득하고 분석하는 작업이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노년층과 청년층에서 실현되는 성조의 세대차를 면면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후고를 기약하도록 한다.

## 참고문헌

- 경남방언보존회(2017), 《경남방언사전》, 경남도청.
- 김고은(2016), <부산지역어의 성조형과 성조 변화>, 석사학위논문(서울대).
- 김세진(2006), <경남 서남부 방언의 성조 연구>, 박사학위논문(충남대).
- 김영만(1966), <경남방언의 성조 연구>, 《국어국문학》 31, 국어국문학회, pp. 21-51.
- 김영만(1972), <고금 성조 비교 재론: 다음절어의 유형과 비교공식>, 《한글》 149, 한글학회, pp. 387-420.
- 김영만(1986), <국어초분절음소의 사적연구>, 박사학위논문(고려대).
- 김영만(1992), <음소론>, 《국어학연구백년사 1》, 고영근 외 편, 일조각, pp. 62-80.
- 김주원(1991), <경상도 방언의 성조 기술방법: 표기 방법의 표준화를 위한 시론>, 《어학연구》 27-3,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p. 585-607.
- 김주원(1994), <성조연구의 성과와 전망>, 《인문과학》 10, 경북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pp. 135-164.
- 김주원(2000), <영남방언 성조의 특성과 그 발달>, 《어문학》 69, 한국어문학회, pp. 91-114.
- 김차균(1973), <국어 성조론과 서부 경남 방언의 성조>, 《한글》 152, 한글학회, pp. 75-115.
- 김차균(1977), <경상도 방언의 성조체계>, 박사학위논문(서울대).
- 김차균(1980), 《경상도 방언의 성조 체계》, 과학사.
- 김차균(1991), <일본 언어학계의 한국어 성조 연구사>, 《언어학 연구사》, 김방한 편, 서울대학교 출판부, pp. 120-172.
- 김차균(1997), <우리말 성조 연구의 성과와 미래의 방향>, 《언어》 18, 충남대학교 어학연구소, pp. 61-313.
- 김차균(2001), <우리말 성조 이론과 그 전망>, 《경남 방언 연구》, 경상대학교 경남 문화연구원 편, 한국문화사, pp. 81-139.
- 김차균(2002ㄱ), <창원 방언과 안동 방언 성조의 비교>, 《우리말글》 25, 우리말글학회, pp. 1-80.
- 김차균(2002ㄴ), <안동방언과 밀양방언 성조 비교>, 《어문연구》 39, 어문연구학회, pp. 5-99.
- 김차균(2003), 《영남방언 성조 비교》, 역락.

- 김차균·이지향·권오욱·성철재(2008), <경남 동남부 방언의 성조 체계>, 《언어학》 50, 한국언어학회, pp. 23-105.
- 문효근(1974), <한국어 성조의 분석적 연구: 15세기 성조와 방언 성조와의 대조>, 박사학위논문(건국대).
- 박숙희(2005), <경북 동해안 방언의 성조 연구>, 박사학위논문(충남대).
- 성철재·권오욱·이지향·김차균(2008), <Q-tone 청취 등급을 이용한 경남 동남부 방언 성조 분석>, 《한글》 279, 한글학회, pp. 5-33.
- 신기상(1986), <동부 경남방언의 음운연구>, 박사학위논문(성균관대).
- 신기상(1999), 《동부경남방언의 고저장단 연구》, 월인.
- 신기상(2013), 《울산방언사전》, 울산광역시.
- 이기문·김완진·최명옥·곽충구·이승재·김영배(1991), <한국어 방언의 기초적 연구>, 《학술원논문집(인문사회과학편)》 30, 대한민국 학술원, pp. 45-99.
- 이문규(1998), <성조소 기술 방법론의 비교 연구>, 《언어과학연구》 15, 언어과학회, pp. 213-234.
- 이문규(2001), <제 4장에 대한 토론>, 《경남 방언 연구》, 경상대학교 경남문화연구원 편, 한국문화사, pp. 140-144.
- 이문규(2010), <성조 방언 간 상성형의 대응 양상과 그 성조사적 의미>, 《국어학논총(최명옥 선생 정년 퇴임 기념)》, 태학사, pp. 277-301.
- 이문규(2011), <경남북 접경 지역 방언의 성조연구>, 《언어과학연구》 59, 언어과학회, pp. 203-232.
- 이문규(2013), <국어 성조론에서의 성조형의 개념과 위상>, 《한글》 301, 한글학회, pp. 5-42.
- 이문규(2017), 《형태소 성조형 중심의 국어 성조론》, 한국문화사.
- 이상억(1990), <성조>, 《국어연구 어디까지 왔나》, 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어연구회 편, 동아출판사, pp. 128-138.
- 임석규(2003), <동남방언의 성조소에 대한 재검토>, 《국어국문학》 135, 국어국문학회, pp. 37-69.
- 임석규(2014), <성조 현상을 토대로 한 방언구획론을 위하여>, 《방언학》 19, 한국방언학회, pp. 5-40.
- 정연찬(1974), <경상도 방언의 성조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
- 최명옥(1990), <동남방언의 성조형과 그 분포>, 《제18회 국제학술대회 논문집》, 대



한민국 학술원, pp. 67-88.

최명옥(1994), <경상도의 방언구회 시론>, 《우리말의 연구(외골 권재선박사 회갑기념 논문집)》, 우골담, pp. 861-892.

최명옥(1998), <현대국어의 성조소체계>, 《국어학》 31, 국어학회, pp. 23-52.

허 웅(1954), <경상도 방언의 성조>, 《최현배 선생 환갑기념논문집》, 사상계사, pp. 479-519.

허 웅(1955), <방점연구>, 《동방학지》 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pp. 37-194.

伊藤貴祥(2011), <청년층 동남방언의 상성형 변화 양상>, 《국어학》 60, 국어학회, pp. 182-210.

伊藤貴祥(2015), <동남방언 성조의 지역적 분화 연구>, 박사학위논문(서울대).

菅野裕臣(1972), <朝鮮語慶尙道方言アクセント體系の諸問題>, 《アジア・アフリカ語學院紀要》 3, 東京外國語大, pp. 83-96.

## Tone of Gyeongnam Dialect

Kim Goeu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introduce the tone of the Gyeongnam dialec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so far. For the purpose, the tone of the Gyeongnam dialect is examined in areas such as tonemes, tonal patterns and their realization, and then recent changes of tonal patterns observed in younger speakers of the given regions.

First, the Gyeongnam dialect has a two-toneme system with 'Low Tone(L)' and 'High Tone(H)'. Second, the Gyeongnam dialect has three tonal patterns, 'Mal(馬) Pattern', 'Mal(斗) Pattern', and 'Mal(語) Pattern', which originated from the tone of Middle Korean. Third, the merge of Mal(語) pattern and Mal(語) pattern which begins with a low tone is being observed in the younger generation of the Gyeongnam dialect, which leads to less tonal patterns than in the past.

**Key words:** Gyeongnam dialect, tone, toneme, tonal pattern, generational tonal change

김고은 (서울대학교 박사수료)

주소: 서울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08826]

전자우편: twlovege@snu.ac.kr

접 수: 2018.11.12.

수정본 접수: 2018.12.11.

게 재 확 정: 2018.12.12.